

전두환 회고록 전면 퇴출이냐...5·18 허위 내용 삭제냐

5·18기념재단, 법적 대응 방법 고심

광주 법조인들과 이달중 판매·배포금지 가져본 신청 제기

‘역사 쿠데타’라는 비난을 사고 있는 전두환 회고록(자작나무숲)이 ‘실패한 역사 쿠데타’로 출판시장에서 영구 퇴출당할지, 5·18민중항쟁 관련 허위사실이 삭제된 반쪽짜리 회고록으로 유통될 것인지 법원의 결정에 관심이 쏠린다.

5·18기념재단과 광주 법조인들이 전두환 회고록 판매 및 배포금지 가져본 신청을 광주지방법원에 이달 중 제출하기로 한 가운데, ‘총 3권으로 된 회고록 전체의 배포를 막아달라’고 우선적으로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5·18 관련 허위내용을 삭제하도록 해달라’고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5·18기념재단은 제37주년 5·18민주화운동기념일(18일) 이전에 전두환 회고록 판매 및 배포금지 가져본 신청을 광주지

법이 제기하는 것을 목표로 광주지방변호사회, 민변 광주·전남지부와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3일 밝혔다.

5·18재단은 회고록 3권에 대한 분석을 거쳐 5·18관련 허위사실이 담긴 부분을 가려낸 파일과 전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문(내란목적 살해 등·1997년 판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전일빌딩 헬기사격 총탄 흔적) 등 각종 기록물을 법률대리인 측에 건넸다.

전두환 회고록이 시중에 풀린 지만날 초부터 5·18 관련 ‘팩트체크’에 들어간 5·18재단은 ▲헬기사격은 없었다는 내용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지만원씨 주장을 인용한 부분 ▲광주에 투입된 공수부대는 대검 살상을 저지른바 없다는 취지의 주장 등 10여가지 사항은 명백한 허위라

는 판단을 내린 상태다.

문제는 회고록이 전 전 대통령의 집권과정과 통치 전반을 담은 2000여 페이지의 방대한 분량이라는 점에 대한 사실관계 검토를 모두 마무리하려면 가져본 신청 전까지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책 전체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마치려면 수개월이 소요되고, 그라는 사이 5·18 희생자와 광주시민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주장이 담긴 전두환 회고록이 버젓이 유통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5·18재단과 법률대리인 측은 ▲우선적으로(주위적 청구) 전두환 회고록 3권 전체의 판매와 배포를 금지해달라는 청구를 ▲차선책으로(예비적 청구) 5·18 관련 허위 내용을 삭제시켜달라는 요구를 법원에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5·18재단을 대리해 소송을 준비 중인 한 변호사는 “18일 이전, 늦어도 이달 중 전두

환 회고록 판매 및 배포금지 가져본 신청을 법원에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전 전 대통령이 군사반란으로 군권을 장악한 뒤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에 나선 광주시민을 유혈진압해 내란목적 살해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인물이라는 점에서 회고록 전체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없더라도 ‘전체 내용이 역사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그 피해 또한 중대하다’고 법원이 판단할 경우 회고록 전체의 판매와 배포를 금지하는 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작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두환 회고록 관련 민사재판과는 별개로 고(故)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는 최근 광주지검에 “전두환이 5·18 헬기사격을 증언한 조비오신부를 가리켜 거짓말쟁이로 묘사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전 전 대통령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최근 고소한바 있다. /김형호기자 khh@

공사대금 허위 청구 18억 채긴 현장소장 징역 4년

공사대금을 허위·과다 청구해 회삿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40대 현장소장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상훈)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배임)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광주의 한 시설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3년 8월 현장사무실에서 모 회사가 공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사를 것처럼 회사를 속여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등 이같은 방법으로 2015년 7월31일까지 288회에 걸쳐 18억577만여원을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허위·과다 청

구금액 중 초과 지급분 8억1400여만원을 자신 또는 부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공사대금을 허위·과다 청구해 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가로챘다”며 “이는 건설공사의 신뢰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부실공사를 양산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회사에 합의 등 아무런 피해회복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A씨에 대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잔소리 시비 끝 흥기 휘두른 우즈베크인 항소심서 감형

자신에게 잔소리를 한다는 등의 이유로 다투다 상대방에 흥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우즈베크인 남성인 국적의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40)씨에 대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에 사용한 흉기와 피해부위·피해정도 등에 비춰볼 때 자칫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신체·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했음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A씨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사실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3일 오후 6시12분께 광주 광산구 한 지역에서 같은 국적의 B(36)씨와 다투던 중 흉기로 B씨를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세월호 수색 중단...용역업체 임금 문제로 철수

지장물 제거 작업 차질

해수부 “오늘 작업 재개”

3·4층 수색 내달까지 마무리

세월호 내부 수색작업 16일째인 3일 오후 갑자기 중단됐다. 수색작업을 맡은 한 용역업체가 임금문제 등을 이유로 철수했기 때문이다.

3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께 선체정리업체인 코리아살비지에 폐쇄 등 미수습자 수색 인력을 공급하는 용역업체 중 1곳이 일방적으로 작업을 중단하고 철수했다.

코리아살비지는 용역업체 2곳에서 작업 인력을 공급받고 있다. 이 중 1개 업체가 임금문제로 갈등을 빚으며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업체는 코리아살비지에 수색 인력을 공급하고 있지만 임금체계는 다른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작업 규모나 인력, 임금 문제의 정확한 원인 등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업체 사이에 임금 문제가 있어 1개 업체가 일방적으로 작업 중단 후 철수했다”며 “이날 오후 회의를 거쳐 내일부터 정상 작업에 나설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용역업체 인력이 철수하면서 이날 계획했던 지장물 제거 및 수색 작업은 차질을 빚었다.

현장 수습본부는 3층과 4층에서 진흙 61개(톤백)를 걷어내려 했지만 28개를 수



석가탄신일 세월호 추모 발길

석가탄신일인 3일 오전 세월호를 추모하는 노란 리본이 휘날리는 목포시 목포신항에는 온전한 미수습자 수습을 기원하고 욕상에 거치된 세월호를 보기위한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연남뉴스

거하는데 그쳤다.

선미측 5층 전사실 절단작업은 계속 진행됐다. 전사실 해체량은 134.4㎡에 달하는 3개 면을 잘라냈다. 잘라낸 부분은 전체 면적 440㎡ 가운데 390.4㎡로 88.7%를 끝냈다. 진흙 분리작업과 햇빛가리개용 진흙 분리대 천막 설치도 진행됐다.

수색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 아직 속단할 수는 없지만 선체조사위 안에서는 3~4층 수색 마무리는 6월말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3~4층 수색에도 성과가 없으면 5층 조타실 옆에 있는 1등 객실과 화물창 등을 수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광주 고려인마을 주민 300여명 내일 완도 나들이

완도군, 해조류박람회 초청

광주에 정착한 고려인마을 주민 300여명이 5일 완도 나들이에 나선다.

광주고려인마을은 어린이날을 맞아 고려인 동포들을 위해 완도에서 열리고 있는 ‘2017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에 방문한다고 3일 밝혔다.

완도군의 초청으로 국제해조류박람회에 참석하는 고려인마을 주민들은 완도 해변공원과 장보고 유적지, 완도타워 등을 방문하고 미래자원관, 바다신비관, 건강인류관 등에서 진행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또 그동안 접하기 힘들었던 다양한 해조류 등을 직접

만져보며 체험하는 시간도 가질 계획이 있다.

완도군 관계자는 “한국에서 고생하고 있는 고려인 동포들을 위로하기 위해 초청했다”며 “완도에 방문한 이 날만큼은 모든 걱정을 내려놓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면 한다”고 말했다.

신조야 광주고려인마을 대표는 “과거 고려인들이 살던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크 등에는 바다가 없었다. 한 번도 바다에 가본 적이 없는 아이들이 너무나 좋아하고 있다”며 “아이들이 어린이날을 맞아 큰 선물을 받았다. 초청해주 완도군에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쓰레기 수거함 화재 용의자 담배꽂초 투기男 잡아라



○경철이 광주의 한 원룸 앞 쓰레기분리 수거함에서 일어난 화재 용의자로 인근 CCTV에 잡힌 ‘담배꽂초 투기남(男)’을 유력하게 보고 추적 중.

○3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6시15분께 광주시 광산구 산정동 1원룸 앞 쓰레기분리수거함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원룸 외벽과 전

기계량기 등을 태우고 꺼졌지만 자칫 큰 불로 번질 위험이 있었다는 것.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은 원룸 주변 CCTV를 분석하던 중 쓰레기분리수거장 주변에 담배꽂초로 보이는 물건이 내뒹고 간 남성의 모습을 확보하고 추적에 나서면서 “건조한 날씨 탓에 무심코 쓰레기 더미에 던진 담배꽂초가 큰 불길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며 주의를 당부.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BN 테이크아웃(포장판매)의 혁신

전기/가스가 필요없는 **참숯 떡갈비/통닭 바비큐 훈연기**
현재영업중인 음식점/점포 장비구입, 메뉴 추가로 대박창출!!

제품크기 • BN 1500 : 1440(L) × 650(W) × 1250(H)
• BN 1000 : 940(L) × 650(W) × 1250(H)

본사/영업본부 :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604-1 공구상가 C 32동 401호 홈페이지 : bnitech.co.kr
Tel. 02-2029-8188/9 Fax. 02-2029-6404 E-mail : bnitech1122@naver.com
공장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신단지 45(장덕동) 호남영업본부 : Tel.062-953-2995 Fax.062-953-2998

참숯 떡갈비/통닭 바비큐 훈연기

테이크아웃(포장판매) / 창업

현재 영업중인 음식점/점포
저렴한 장비 구입하여
떡갈비/통닭 메뉴 추가/포장판매로
부가 이익이 발생됩니다.

제품의 특징

- ▶ 육질이 살아있어 육질이 부드럽다.
- ▶ 여러 집내가 없이 깔끔한 맛이다.
- ▶ 뛰어난 맛과 육질(부드러운) 포장판매 가능하다.
- ▶ 최고의 숯향(불맛)이 살아있다.
- ▶ 냉장보관 3일, 재고사용할 수 있다.
- ▶ 장비 이동이 용이하다.
- ▶ 전기, 가스가 필요없다.

장기 카드할부로 구입비용 부담 줄이세요!!

적용분야

- ▶ 가정집(남녀노소)
- ▶ 낚시터, 야유회
- ▶ 펜션/콘도
- ▶ 캠핑시

언제, 어디서나
맛있게 드세요!
반찬으로, 간식으로!!